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1. No. 11, pp. 81-88, 2020

ISSN 2233-4890 / eISSN 2713-6353
https://doi.org/10.15207/JKCS.2020.11.11.081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 향상교육을 통한 인권감수성과 환자권리 인식의 융합적 관계에서 효과성

범은애, 전열어*, 최애숙, 구정아
백석문화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Effectiveness in the Converged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patient rights awareness through nursing students' human rights sensitivity improvement education

Eunae Burm, YeolEo Chun*, Ae-Sook Choi, Jeung-Ah Gu
Professor, Division of Nursing, Baekseok Culture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교육을 통한 인권감수성 및 환자권리인식의 효과성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인권감수성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간호 대학생 318명으로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실시 전과 후의 인권감수성과 환자권리인식을 파악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 인권감수성은 총 90점 만점의 평균 40.22점이며, 각 문항별 점수 환산 시 평균 2.23점이었다. 사례기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은 학생은 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보다 인권감수성과 환자권리인식이 향상됨을 보였다(t=2.765,p=.006, t=-5.768,p=.000).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기반 마련과 추후 임상실습과 인권감수성과의 관계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 인권교육, 간호대학생, 인권감수성, 환자권리, 교육

Abstract In this study, an attempt was made to prepare an effective human rights sensitivity education plan for nursing students. This study was before and after a non-equal control group that identified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patient rights awarenes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of the subjects averaged 40.22 out of 90 points. The effect on human rights sensitivity through case-based human rights sensitivity education showed that students who received training to improve case-based human rights sensitivity improved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patient rights awareness than those who did not(t=2.765,p=.006, t=-5.768,p=.000).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considered that the foundation of the curriculum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of nursing students should be prepared. We propose a later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and human rights sensitivity.

Key Words : Human rights education, Nursing students, Human rights sensitivity, Patient rights, Education

*Corresponding Author : YeolEo Chun(yeoleo2011@bscu.ac.kr)
Received September 28, 2020 Revised November 2, 2020
Accepted November 20, 2020 Published November 28, 2020

1. 서론

1.1 서론

1.1.1 연구의 필요성

인권(Human Rights)은 인간으로 갖게 되는 당연한 권리로서 인간의 삶을 존엄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조건이며, 보편적인 권리를 말한다[1]. 인권감수성은 결과지각, 상황지각, 책임지각의 세 가지 하위 영역으로 인권에 대한 지식, 기술 및 태도의 측면이 아닌 문제적 상황에 대한 해석 및 지각의 능력을 말한다[2]. 인권교육은 인간이 가진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로 인권의 존중과 보호를 위한 행동양식과 기술을 형성하도록 돕는데 있다[3]. 청소년의 인권존중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연구에서[4] 인권을 존중받지 못한 경험은 선생님으로부터 차별, 교우간의 따돌림, 욕설 등으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권존중 경험을 조사한 결과[5] 인권존중의 경험이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학교적응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들이 간호학과 적응과 임상실습에서의 임상실습수행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권은 학교 및 사회적응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권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인권위원회[6]의 교육과정, 방문프로그램, 인권특강, 사이버교육 등 참여인원은 2018년 343,627명에서 2019년 445,807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대학교를 대상으로[3, 7] 실시한 조사 결과 '인권교과목' 개설비율은 응답대학의 31%이며, 개설학교에 따라 평균 6.60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체 응답 대학교에 비해, 평균 2.0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우정[8]의 연구에서는 인권교육은 교양교과보다 전공 선택교과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특정 전공 대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전공필수가 아닌 전공 선택 교과목으로 개설되어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만 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간호교육에서도 2000년부터 환자 권리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이 중요시됨에 따라, 환자권리와 관련한 연구에서 포괄적 의미의 권리보다 구체적인 환자권리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간호대학 인권교육은 정신간호학·간호윤리·노인간호학 교과목 등에서 교육되고 있다[9]. 최근에 정신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간호전문직에서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문명화된 성숙한 사회는 인간을 평등의 존재, 존엄성을 지닌 존재로 인정하여 생명의 권리를 존중하고 법제도를 실현하는 데로 나아간다. 간호는 우리나라 정서에 따른 예의와 윤리적인 도덕적 감수성과 융합적으로 관련이 있으며[10] 예의를 통한 보편인권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측면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런 유교적 기반의 예의 및 윤리성과 융합적인 간호전문직에서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도 인권교육의 제도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11]. 전문간호사를 양성하는 간호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뿐 만 아니라 인권에 대한 이해와 환자인권 강화를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간호사는 인권 교육 및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권감수성과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의 함양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12]. 최근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임상실습 안전관리 인증기준으로[13] 임상실습 시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인권관련 규정 및 지침과 학생대상 인권관련 교육실시 현황을 또한 요구하고 있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 및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을 알아보는 것은 향후 인권 감수성 향상 및 환자권리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하여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 및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정도와 영향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1.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 내용과 같다.

1.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다.
   가.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나.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이 인권감수성과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with pretest-posttest design)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Research Design

Group	Pre	Treatment	Post
Control	C0	X1	C1
Experimental	E0	X1+X2	E1

2.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C시에 소재하고 있는 B대학교 간호학과 3, 4학년 학생으로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경험이 없는 학생이다. 연구 대상자는 무작위 추출 방법을 통해 실험군과 대조군 두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대상자 수 산출을 위하여 실험연구 표본의 크기에 대한 연구에서[14] 74%이상이 11-40명을 대상자 수로 설정하여 진행한 것과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 준 (α) 0.05, 검정력(1-β) 0.95, 회귀분석에서 산출하였을 때 그룹당 최소 표본수가 99명으로 산출되어 표본 크기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조군과 실험군의 그룹의 모수 표본수를 3, 4학년 총 31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로 하였으며, 대조군에게 윤리적으로 교육에서 배제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조사가 끝난 후에 대조군 대상자가 속해 있는 집단에게 교육을 제공하였다.

2.3 자료수집방법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였으며, 간호대학생에게 이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와 동의를 구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대상자에게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시기는 임상실습 시작하기 전과 임상실습기간 인권감수성 교육 직후 2회 실시하였다. 총 3학년은 158부, 4학년은 168부 회수하여불성실한 설문지 8부를 제외한 총 318부를 자료로 분석하였다.

2.4 연구도구

2.3.1 인권감수성

인권감수성에 대한 측정도구는 국가인권위원회[2]에서 2002년에 대학생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읽고 인권 옹호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전혀 중요하지 않음' 1점에서 '매우 중요함' 5점까지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인권문항 점수가 비인권 문항 점수보다 높은 경우에 그 점수를 선택하고, 인권문항 점수가 비인권문항 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0점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각 지각척도 검사 문항은 최소 0점에서 최대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권 감수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황주연 연구에서는 인권감수성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α =.83이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인권감수성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α=.794 로 측정되었다.

2.3.2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도구는 황주연[11]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로 알권리와 자기결정권(6문항),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평등권(4문항),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4문항), 비밀 및 사생활보장에 대한 권리(4문항), 보건정책참여권(4문항), 손해배상 청구권(2문항)으로 6개의 하위 권리영역에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환자권리를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음' 1점에서 '매우 중요함'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권리 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황주연 연구에서는 신뢰도는 Cronbach's α=.96이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982로 보고되었다.

2.5 연구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PC+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인권감수성과 환자권리 인식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인권감수성과 환자권리 인식의 효과는 교육 전·후 paired t-test로 검정하였다. 실험군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과 환자권리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2.6 연구가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대상의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실험군에게는 특강 및 사례기반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을 적용하였으며, 대조군에게는 특강기반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제 1가설 : 실험군과 대조군은 교육 전과 교육 후에 인권감수성 정도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2. 제 2가설 : 실험군과 대조군은 교육 전과 교육 후에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정도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3. 연구결과 및 논의

3.1 대상자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성별은 여학생이 292명(91.8%)으로 남학생 26명(8.2%)에 비해 많았다. 연령별로는 22-24세가 142명(44.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1세 이하(42.1%), 25세 이상(13.2%)의 순이었다. 학년별로는 3학년이 155(48.7%), 4학년이 163(51.3%) 수준으로 균등하게 조사되었다. 종교는 유교가 168명(52.8%), 무교가 150명(47.2%)이었고, 가족 수는 4명이라고 응답한 수가 181명(56.9%)으로 가장 많았으며, 출생 순서로 첫째라고 응답한 수가 136명(42.8%), 둘째가 132명(41.5%)이었다. 가족 중 환자가 있다고 응답한 수는 172명(54.1%)이었고, 가족 중 의료인이 있다고 응답한 수는 83명(26.1%)이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인권에 대한 교육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는 187명(58.8%)으로 어느 정도 인권교육에 대하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학교에서 간호학과에 입학한 후에 인권교육에 대하여 교육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수는 34명(10.7%)이었고, 전공교과목 중에서 인권교육을 경험한 경우는 32명(10.1%)으로 매우 낮았으며, 학교 성적은 122명(38.4%)이 중간이라고 대답하였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에서 인권교육의 필요성에도[11] 불구하고 인권교육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인권교육 도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1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Female	292(91.8)
	Male	26(8.2)
Age(yr.)	≤21	134(42.1)
	22-24	142(44.7)
	≥25	42(13.2)
Grade	3	155(48.7)
	4	163(51.3)
Religion	yes	168(52.8)
	no	150(47.2)
Number of family members	2	5(1.6)
	3	40(12.6)
	4	181(56.9)
	5	72(22.6)
	≥6	20(6.3)
Position in family	Only child	15(4.7)
	First	136(42.8)
	Second	132(41.5)
	Third	28(8.8)
	fourth	7(2.2)
Financial status	High	6(1.9)
	Middle-high	72(22.6)
	Middle	170(53.5)
	Middle-low	54(17.0)
	Low	16(5.0)
Family members who are sick	Yes	172(54.1)
	No	146(45.9)
Healthcare provider in family	Yes	83(26.1)
	No	235(73.9)
Education experiences regarding human right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Yes	187(58.8)
	No	131(41.2)
Education experiences regarding human rights in college	Yes	34(10.7)
	No	284(89.3)
Education experiences regarding human rights in nursing major	Yes	32(10.1)
	No	286(89.9)
Academic achievement	High	31(9.7)
	Middle-high	102(32.1)
	Middle	122(38.4)
	Middle-low	53(16.7)
	Low	10(3.1)

3.2 대상자 인권감수성과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대상자의 인권감수성 및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의 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인권감수성은 총 90점 중 평균 40.22점이며, 각 문항별 점수로 살펴보면 평균 2.23점이었다. 인권감수성의 하위 영역에 다라 살펴보면, 상황지각 2.22점, 결과지각 2.29점, 책임지각 2.19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책임지각에 비해 상황지각과 결과 지각이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황주연[10]연구의 점수보다 3.0점 낮았고,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보다는 5.84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15,16]. 간호는 업무수행 과정 시 인권측면보다는 윤리적 측면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낮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간호대학에서 학생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연구대상자의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은 4.40점으로 대체로 높았다. 하위영역에서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누릴

권리 및 평등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4.44점으로 가장 높았고,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4.42점, 보건의료정책 참여권은 4.42점 순이었다. 반면 비밀사생활보장권이 4.36점, 진료 받을 권리는 4.35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비교적 낮았다. 이는 일반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김채원[17]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며, 간호대학생들은 예비 의료인으로서 아직 실질적 임상업무의 경험이 적은 이유에서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Table 3.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Perception of Patients' Rights

(N=318)

Categories		M±SD
Human rights sensitivity	Situation perception	2.22±.97
	Result perception	2.29±.94
	Responsibility perception	2.19±.86
	Total	2.23±.53
Perception of patients' rights	Right to pursue human worth and dignity and right of equality	4.44±.70
	Right to know and make autonomous decision	4.42±.70
	Right to receive protection of privacy and confidential information	4.36±.68
	Right to receive medical treatment	4.35±.73
	Right to claim compensation	4.44±.74
	Right to participate in public health policy	4.42±.72
	Total	4.40±.67

3.3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을 통한 인권감수성 및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의 효과

3.3.1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 검증은 성별, 연령, 학년, 종교로 조사하였으며,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실험군 169명, 대조군 149명이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동질성 검증결과에서, 연령. 성별, 학년, 종교는 두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두 집단이 동질집단임이 확인되었다(p=.071, .447, .177, .472).

Table 4. Homogeneity

Category	Subcategory	Control (n)	Experi-mental (n)	p
Age(yr.)	≤21	64	71	.071
	22-24	72	69	
	≥25	13	29	
Sex	male	13	13	.447
	female	136	156	
Grade	3	68	87	.177
	4	81	82	
Religion	no	80	89	.472
	yes	69	80	

3.3.2 실험군과 대조군의 종속변수에 대한 검증

1. 제 1가설 : 실험군과 대조군은 교육 전과 교육 후에 인권감수성 정도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교육 전·후 인권감수성의 평균 차이를 확인한 결과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765, p=.006)(Table 5 참고). 실험군의 인권감수성은 특강과 사례기반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후 .30±.10점이 상승하여 전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832, p<.005). 반면, 대조군의 인권감수성은 특강기반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후 .09±.11점이 상승하였으나(t=1.628, p<.105) 전후 인권감수성 향상 정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험군과 대조군은 교육 전과 교육 후에 인권감수성 정도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제 1가설은 지지되었다.

이 결과는 황주연[11]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의 경험이 있는 학생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보다 인권감수성이 높은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차유미와 차성현[5]의 연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권존중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인권존중의 경험이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학교적응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들이 간호학과 적응을 위해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간호는 우리나라 정서에 따른 예의와 윤리적인 도덕적 감수성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9] 보편인권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측면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제 2가설 : 실험군과 대조군은 교육 전과 교육 후에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교육 전·후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의 평균차이를 확인한 결과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5.768, p=.000)(Table 5 참고). 실험군의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은 특강과 사례기반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후 .31±.06점이 상승하였다(t=4.735, p<.000). 대조군의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은 특강기반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후 .18±.07점이 상승하여(t=2.345,

p<.020) 두 집단 간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향상 정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실험군과 대조군은 교육 전과 교육 후에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정도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제 2가설은 지지되었다. 이 결과는 황주연[11,18] 연구의 인권감수성과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은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냄에 따라 인권감수성 향상교육은 환자권리인식을 높이는 것과 일치한다. 임희수[19] 연구에서는 인권친화적 교육을 위해 임상실습시 감정노동 정도를 확인한 결과 감정노동을 강하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시 느끼는 감정노동을 감소하기 위해 환자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able 5. Difference in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patient rights awareness

Category		Pre	Post	In	Pre-post	Inter
		M±SD	M±SD	t/p	M±SD	t/p
H.R.S	C	2.00±1.06	2.30±.83	-2.832/<.005	.30±.10	2.765/.006
	E	2.15±.89	2.34±1.07	-1.628/<.105	.09±.11	
P.R	C	4.35±.68	4.66±.48	-4.735/<.000	.31±.06	-5.76/8.00
	E	4.28±.67	4.46±.65	-2.345/<.020	.18±.07	

3.4 일반적 특성이 인권감수성 및 환자권리에 미치는 영향

실험군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과 인권감수성및 환자권리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인권감수성과 환자권리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 선택법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 7과 같다.

Table 6.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Human right sensitivity

Category	β	t	p
Grade	-.301	-4.084	.000
Age(yr.)	-.035	-.473	.637
Gender	.099	1.342	.181
Religion	.012	.167	.867
Academic achievement	-.045	-.606	.546
Number of family members	-.065	-.872	.385
Education experiences before college	-.035	-.474	.636
Education experiences in college	-.105	-1.430	.154
Education experiences in nursing major	.091	1.235	.219
adjusted R2 : .085, F=16.677, p<.01			

Table 7.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patient rights

Category	β	t	p
Grade	.626	3.513	.001
Age(yr.)	.066	.877	.382
Gender	-.018	-.237	.813
Religion	.076	1.013	.312
Academic achievement	.141	1.880	.062
Number of family members	-.052	-.688	.492
Education experiences before college	-.012	-.154	.878
Education experiences in college	.101	1.353	.178
Education experiences in nursing major	-.018	-.239	.812
adjusted R2 :.085, F=16.677, p<.01			

인권감수성과 환자권리 인식의 융합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년(β =-.301, p=.000, β=.626, p=.001)에 따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4학년 학생이 다른 학년에 비해 임상실습에 대한 경험이 많아서일 것으로 추측된다. 추후 임상실습을 통한 인권감수성 향상과 환자권리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결과, 향후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관련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개발된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교육 전과 후의 인권감수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인권에 대한 교육을 경험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수는 187명(58.8%)으로 어느 정도 인권교육에 대하여 경험이 있었다. 반면, 대학교에서 간호학과에 입학한 후에 인권교육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수는 34명(10.7%)이었고, 전공교과목 중에서 인권교육을 경험한 경우는 32명(10.1%)으로 매우 낮아 대학에서의 인권관련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권감수성은 총 90점 중 평균 40.22점이며, 각 문항별 점수로 살펴보면 평균 2.23점이었다.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은 총 5점 만점에 4.40점으로 대체로 높았다. 간호학에서 특강이나 사례기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통해 인권감수성 및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이 향상됨을 검증해 볼 수 있었다(t=2.765, p=.006, t=-5.768, p=.000). 이는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수행하는

데 있어 대상자 간호문제해결을 위한 인성함양과 간호지식, 기술, 임상대처능력 향상으로 간호실무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권옹호자 및 교육자로서의 역량 강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문헌고찰 결과 인권인식의 증가는 학교와 사회의 적응에 도움이 됨에 따라 추후 간호학과 학생들이 임상실습 수행과 인권감수성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제언한다.

또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방법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사례기반 인권감수성향상 교육이 인권감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다수의 학생이 연구 대상자로 참여하여 그 효과를 증명한 것이 본 연구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 활동이 임상실습 수행능력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 방안으로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REFERENCES

[1] H. N. Choi & M. C. Kim. (2020). A Study on the Public Awareness Towards Children's Rights to Live in Better Environments - Based on the Analysis of Decision Cases. *Soongsil Law Review*, 47. 445-468.
http://www.dbpia.co.kr.libproxy.snu.ac.kr/pdf/pdfView.do?nodeId=NODE09355186.

[2] Korea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2002). *Developing indicators of psycological scale for human rights sensitivity.*
www.humanrights.go.kr

[3] B. C. Hyun. (2015). *A Discussion on the Status and Development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University an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Seoul: humanrights.go.kr.

[4] M. S. Oh (2016). A study on convergence school adjustment and parameter validation of the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5), 71-78.
DOI : 10.15207/JKCS.2016.7.1.18

[5] Y. M. Cha & S. H. Cha. (2019).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Convergent Relationship between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10),* 207 - 214
DOI: 10.15207/JKCS.2019.10.10.207

[6] Korea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2019). 2019, HUMAN RIGHTS STATISTICAL YEARBOOK.
www.humanrights.go.kr

[7] Korea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2016). HUMAN RIGHTS STATISTICAL YEARBOOK.
www.humanrights.go.kr

[8] W. J. Kim & Y. A. Ju. (2020). Integrated Education for Sustainable Character, Human Rights, Cultural Diversity Based on Family Life Education: Focusing on University Student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8(1),* 31-41.
DOI : 10.6115/fer.2020.003.

[9] K. H. Lee & S. W. Chong. (2013). Articles : A Study on the Status and Necessity of Human Rights Education for Nursing College. *Journal of Law-Related Education, 8(1),* 111-140.
https://primoapac01.hosted.exlibrisgroup.com/permalink/f/enmgnl/TN_cdi_kiss_primary_3151665.

[10] J. E. Lee. (2018). The Age of Disgust, Where Does That's End Go? - Universal Human Rights Leading from Kant's Courtesy to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40(4),* 33-64.
http://www.riss.kr/link?id=A105908726

[11] J. Y. Hwang & H. K. Choi. (2015). Nursing Students'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Perception of Patients' Righ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4),* 455 - 465.
DOI : 10.5977/jkasne.2015.21.4.455

[12] M. S. Kim & M. K. Jeon. (2018). Influence of Perception of Patient rights and Ethical Values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4(1),* 1-9.
DOI : 10.14370/jewnr.2018.24.1.1

[13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2020), Nursing education certification evaluation for the second half of 2020 University Handbook, 75
http://www.kabone.or.kr

[14] M. J. Kim, M. S. Lee, M. H. Lee, H. I. Lee. (1994). Analysis of Experimental Studies on Master"s and Doctoral Theses in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4(1),* 96-114.
http://www.riss.kr/link?id=A100114405

[15] H. W. Park. (2013). Human rights sensitivity of undergraduates in social welfare classes : Focused on Adult Learner in On-line University, *The Journal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8),* 191-200.
DOI : 10.5392/JKCA.2013.13.08.191

[16] J. O. Park. (2014). *A study on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human rights awareness among college students.* Master dissertation. Chong-Ang University, Seoul.

[17] C. W. Kim. (2014). *Patients' Rights :What they really want? VS What they really have?.* Master dissert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Gangwon

[18] B. G. Park. (2011).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in human rights education :relationship between rearing attitude of parents and high school students' awareness of human rights. *Studies on American Constitution, 22(3),* 91-126.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788095.

[19] H. S. Lim. (2018). A Basic Study for Human

Rights-friendly Healthcare Manpower Training :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Korean Association of Converging Humanities, 6(1),* 55-73
http://www.riss.kr/link?id=A105120659

범 은 애(Eunae Burm) [정회원]

· 2013년 2월 : 단국대학교 예방의학과(예방의학석사)
· 2016년 2월 : 단국대학교 보건학과(보건학박사)
· 2018년 3월 ~ 현재 : 백석문화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간호, 보건, 메디컬 빅데이터
· E-Mail : burm99@bscu.ac.kr

전 열 어(Yeoleo Chun) [정회원]

· 200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0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9년 3월 ~ 현재 : 백석문화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간호, 공학교육, 보건
· E-Mail : yeoleo2011@bscu.ac.kr

최 애 숙(Ae-Sook Choi) [정회원]

· 1988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08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백석문화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간호, 지역간호, 보건
· E-Mail : aschoi@bscu.ac.kr

구 정 아(Jeung-Ah Gu) [정회원]

· 1996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6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백석문화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아동건강, 청소년 건강, 재난간호
· E-Mail : agatha1528@bscu.ac.kr